

김상훈의 세상읽기



주말

#1.
자린고비의 사전적 의미는 돈이나 물건을 지나치게 아끼는 인색한 사람을 뜻한다. 일상에서 단순히 절약하는 사람보다는 필요할 때도 쓰지 않을 만큼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을 비유할 때 사용한다. 비슷한 말로는 구두쇠, 수전노 등이 있으며, 모두 씹씀이가 인색한 사람을 가리킨다. 이에 대한 어원으로 다양한 설이 존재한다. 먼저 ‘충주 자린고비’라 불리는 실존인물인 조록(1649~1714)이 모델이라는 설이 있다. 그가 평생동안 구두쇠짓을 해 모은 돈으로 가문에 시달리던 1만 호의 백성을 구하자 그 지역 주민들이 감동해 사후에 ‘자린고비(慈仁孝碑, 아버이 같이 인자한 사람을 위한 비석)’라는 이름의 비를 세운 것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또 부모 제사 때 쓰는 지방(고비)을 한 번 고비 태워버리는 것이 아까워서 기름에 절여 놓고 쓰는 사람이라는 뜻의 ‘절인 고비’가 음운변화를 거쳐 자린고비가 됐다는 얘기도 있다. 이어 ‘잘은 짚재기’가 변해 자린고비가 됐다는 설도 있다. ‘잘은’은 말 그대로 ‘잘다(자다)’는 뜻이고 ‘짚재기’는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사물’을 일컫는 말로 아니꼬울 만

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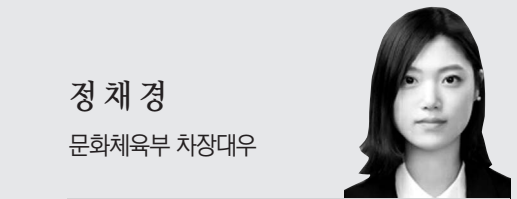
조란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총무과장

자매도시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다. “자매도시가 되면 우리 주민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단순한 질문 같지만, 자매도시 교류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협약서를 교환하고 서로의 축제를 찾아 축하 인사를 나누는 일도 중요하다. 도시와 도시가 신뢰를 쌓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다르다. 자매도시라는 인연이 실제 생활에서 어떤 혜택으로 돌아오는지, 바로 그 지점에서 교류의 의미를 느끼게 된다. 우리 남구는 현재 전국 21개 도시와 우호협력 및 자매결연을 맺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 강서구와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원도·진도·영광·보성·임실·춘천·영등포·곡성·안산·함평·장흥·나주·담양·순창·고창 등 지역과 규모가 서로 다른 도시들과 관계를 넓혀왔다. 하지만 이제는 자매도시의 숫자보다 그 관계 안에 무엇을 채워 넣느냐가 더 중요하다. 교류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관심을 특히 많이 채감하는 분야가 ‘자매도시 할인혜택’이다. 여행이나 나들이를 앞두고 내가 사는 남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 현재 남구 주민은 여러 자매·우호도시의 관광·문화시

취재수첩

명화의 가치와 시대의 무게 사이

정 채 경
문화체육부 차장대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특별전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은 명절 연휴 초입에 개막해 연휴 동안 많은 시민들의 발길을 모았다. 전시의 중심축인 인상주의의 미술사적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19세기 프랑스에서 아카데미즘의 권위적 형식에 맞서 화실 밖으로 나가 빛과 일상을 담아낸 인상파는 기존 질서에 균열을 낸 위대한 도전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 사조는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품은 광주에서 소개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술적 유산이다. 논란은 작품 그 자체보다 전시를 둘러싼 맥락에서 비롯됐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박물관 소장품으로 꾸러

자린고비의 진화

큼 잘고 인색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자린고비는 생선이나 강장뿐 아니라 부채, 집신, 장도리, 담배, 밥풀처럼 사소한 물건까지 극한으로 아끼는 모습들이 과장되게 소개된 여러 설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구두쇠 혹은 구두쇠의 대명사가 됐다. #2 최근 청년 세대사이엔 신(新)자린고비 생활을 뜻하는, 이른바 ‘저소비 생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가진 물건이 닳을 때까지 사용하거나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소비 문화를 뜻하는 데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속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이미 가진 물건을 고쳐 쓰거나 빌려 쓰며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생활 방식을 말한다. 다시 말해 무조건 아끼는 절약이 아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여행·취미처럼 가치 있는 경험에 집중하는 선택적 소비를 일컫는 것이다. 충동구매를 미루고, 기존 물건을 고쳐 쓰며, 소비를 기록·공유하는 등 절약을 콘텐츠화하고 무지출 챌린지·중고 구매·공유·수리 등 실용적인 소비를 생활 습관으로 확장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꼭 필요한 소비만 한다는 얘기로 다이소 같은 저가 쇼핑과 중고거래가 최근 인기를 얻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지난해 출간된 한 일본 유튜브의 한 달 생활비 7만엔(약 66만원)으로 살아낸 경험을 담은 책 ‘저소비 생활’의 한국어 번역본이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로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합리적 소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지출 최소화를 위한 절제 등 극한 절약을 서로 격려하는 거지방

자매도시 교류, 주민이 체감할 때 완성

설과 숙박시설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순창 강전산림공원과 담양 죽녹원 등에서는 무료 입장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함평 자연생태공원과 나비축제·국향대전은 50% 할인, 나주 영산강 황포돛배는 50%, 목사내야 숙박은 3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원도와 장흥, 고창 등에서도 관광시설과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다양한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금액만 놓고 보면 크지 않은 혜택도 있다. 하지만 여행지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남구 주민이라 할인됩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자매도시라는 행정적인 용어가 생활 속의 경험으로 바뀐다. 이런 반응을 접할 때마다 생각하게 된다. 좋은 교류는 설명을 많이 해야 하는 교류보다 주민이 스스로 효용을 발견하는 교류가 아닐까. 특산품 교류판매도 같은 맥락이다. 남구는 자매도시의 우수한 농·특산품을 주민들에게 소개하고 판매하는 행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생산지에는 새로운 판로를 열어주고, 주민에게는 품질 좋은 지역 특산품을 가까운 곳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가장 현실적인 상생 방식 가운데 하나다. 특히 임실군과의 교류는 이제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4월 진행된 임실 특산품 할인 판매 행사는 약 1100만원의 판매 실적을 거뒀다. 큰 호응에 힘입어 올해 9월에도 임실군이 다시 남구를 찾아 임실N치즈 판매행사를 진행한다. 요구르트와 스트링치즈, 구워 먹는 치즈 등 임실의 대

과 여기에서 파생된 한 끼에 8000원 이하 식당을 지도로 알려주는 플랫폼인 ‘거지맵’까지 등장했다. 또 결제도, 배달도 되지 않고 ‘홍내’만 내는 가짜 배달 앱 ‘음식만 안와요’와 가짜 쇼핑 앱 ‘사자사자’ 등도 잇따라 출시됐다.실제 결제는 안하면서 ‘쇼핑을 했다’는 만족감을 주는 현대판 ‘자린고비’ 앱까지 등장한 것이다. #3 이런 현상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고환율, 미국·이란 전쟁까지 겹친 복합 위기 상황과 무관치 않다. 청년 세대가 낮은 취업률과 경제성장률, 고물가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의 하나로 아낄 수 있는 건 모조리 아끼기 위해 이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즉, 장기간 이어진 불안한 경제환경속에서 더는 가정이나 국가의 지원에 기대기 어렵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결국 스스로를 책임지는 소비 방식으로 전환하게 됐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이들이 소비를 줄여 생긴 여유 자금을 예금·적금·투자 상품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특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장지수펀드(ETF), 연금저축 등 장기 자산 형성 상품에 대한 이들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내 ETF 시장은 순자산총액이 최근 5년간 3배 이상 성장했다. 이에 맞춰 토스,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등 주요 금융 플랫폼들도 이들의 소비 분석과 자산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나설 정도다. 2030세대에 부는 이른바 ‘신 자린고비’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나답게 사는 소비’와 ‘자기자신 형성’을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진화하고 있다.

표 제품을 시중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임실N치즈축제와 고향사랑기부제도 함께 알린다. 판매 대상 역시 남구청 직원에 한정하지 않고 청사를 찾은 민원인과 일반 주민까지 확대했다. 이런 풍경이아발로 자매도시 교류가 만들어낸 변화라 할 수 있다. 한 지역의 농가와 생산자가 만든 제품을 다른 지역 주민이 구매하고, 그 지역의 축제를 알게 되고, 여행을 가면 자매도시 주민으로서 혜택을 받는다. 교류의 접점이 하나둘 늘어날수록 행정기관끼리 맺었던 인연은 자연스럽게 주민과 주민을 잇는 관계로 확장된다. 앞으로의 자매도시 교류도 ‘얼마나 자주 만났는가’보다 ‘주민에게 무엇이 남았는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축제에 한 번 더 참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할인혜택 하나를 더 만드는 것,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판로를 한 번 더 열어주는 것, 주민과 민간 단체가 서로의 도시를 오갈 수 있는 계기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더 오래 남는 교류가 될 수 있다. 자매도시라는 이름에는 이미 관계의 의미가 담겨 있다. 좋은 관계는 이름을 붙인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고,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경험의 쌓일 때 비로소 가까워진다. 도시와 도시가 맺은 인연의 성과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 가야 한다. 우리 남구의 자매도시 교류도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매도시라서 좋다”고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는 교류보다 체감하는 교류로 한 걸음씩 더 깊어지길 기대한다.

국가 이미지와 맞물릴 때, 예술의 의미는 의도와 다르게 읽힐 수 있다. 이 미묘한 경계를 살피는 일은 공공 문화기관과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몫이다. 이번 논란을 단순한 찬반의 이분법으로 가를 수는 없다. 작품의 미학적 가치와 공공의 책임은 함께 저울질해야 한다. 광주라는 특수한 정체성을 지닌 도시에 서 국제 전시는 단순히 좋은 작품을 들여오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협력 기관의 성격, 전시가 열리는 시점, 시민사회가 제기한 우려에 귀 기울이며 답하는 과정까지 전시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다. 예술을 정치에 종속시키자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예술의 진정한 자율성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더 투명한 원칙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제 교류의 문을 닫아걸자는 게 아니라, 그 문을 어떤 기준과 태도로 열 것인지 함께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번 논란은 광주에서 국제 전시가 어떤 기준과 설명 속에서 열려야 하는지 되묻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좋은 작품을 들여오는 일과 시민사회가 제기한 우려에 답하는 일은 서로 충돌하는 과정이 아니다. 작품의 아름다움과 공공의 책임이 함께 논의될 때, 광주의 전시는 더 단단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사설

하나된 전남광주, 이제 사회적 통합해야

옛 광주시와 전남도가 하나로 된 지 석달이 됐다. 국내 첫 광역자치단체인 행정통합의 성과물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그동안 8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등 지역미래를 담보할 핵심 현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 행정통합은 올 초 논의가 시작된 이래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6월 지방선거에서 민형배 초대 시장 선출,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 등 뒤돌아볼 틈도 없이 숨가쁘게 달려왔다. 단 6개월여만에 40년간 별도로 운영돼 왔던 광역 자치단체들이 하나로 합쳐져 인구 32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원 규모의 광역경제권이 탄생한 것이다. 또 이로 인한 호재도 잇따랐다. 정부가 기존 광주 군공항 부지 일대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하고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 이른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800조원 규모를 투자해 각각 2기의 반도체 팹(Fab)을 구축키로 하며 가세했다. 이제 호남이 이 곳 반도체 팹을 중심으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연구개발 시설 등을 연계한 국가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수십년간 표류했던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해결의 실마리가 됐다. 이 문제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조성을 위한 선결 과제였기 때문이다. 이에 국방부는 최근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이전 후보지로 확정하고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발굴과 재원 분담, 이전 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전국 최초 통합특별시 출범의 선물인 향후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도 받게 됐다. 하지만 준비안된 통합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첫 조직개편 과정에서 드러난 광주·무안·동부 3개 청사의 기능과 조직 배치를 둘러싼 지역 간 이견,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선정을 둘러싼 동·서부권의 첨예한 갈등은 소지역주의를 더 심화시켰다. 이제 하나된 전남광주는 그냥 물리적 결합을 넘어 1+1=2+α가 되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게 화학적 결합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권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해 지역민 모두가 통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GGM 공채에 지역 구직자 대거 몰린 이유

전국 최초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지역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다. 최근 마감한 2차 기술직·일반직 신입사원 모집에 전남광주 구직자들이 대거 몰려 무려 7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4명 공모에 1691명이 지원했다. 여기에는 GGM이 그동안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꾸준히 제공해 온 점이 크게 작용했다. 또 전자산업과 건설업의 동반 부진, 음료 대기업의 광주공장 폐쇄, 여수석유화학기업의 통폐합 등 지역 제조업 기반이 어느때보다 약화된 것도 한 몫했다. 즉, 지역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실제 광주시민과 자치단체, 그리고 노사의 사회적 대타협으로 지난 2019년 9월 탄생한 GGM은 본격적인 자동차 양산체제에 돌입한 2021년까지 600여 명의 대규모 신입사원을 채용했다. 2021년 1차 신입사원 공채는 일반직 43명 모집에 3274명이 지원해 76.1대 1, 기술직 186명 모집에 1만2604명이 몰리며 67.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지역의 관심이 대단했다. GGM의 이런 채용행보는 매년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계속됐다. 상·하반기 공채를 통해 2024년 102명, 지난해 69명을 뽑았고 올해도 설비증설 등으로 인한 신규·결원 인력을 상반기 50여명 채용한 데 이어 하반기에 20여명을 추가로 뽑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1년 555명이었던 직원은 5년새 220여명 늘게 됐다. 무엇보다 전체 직원의 90% 이상이 전남광주출신이고 20~30대 젊은 층이 85%나 된다는 점과 2021년 3100만원이었던 기술직 평균 연봉도 지난해 4900만원으로 크게 높아진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설립 초 대규모 공채이후에도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채용 규모를 유지하면서 성장해 온 점도 칭찬받을 만하다. 이는 지역 채용시장에서는 매우 드문 사례로 그만큼 안정적인 사업 기반과 꾸준한 성장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상생형 일자리 기업으로 자리 매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GGM이 앞으로 글로벌 자동차 위탁 생산업체로 도약,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길 바란다.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 경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장 최현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40 산업경제부 370-7020 사 회 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논 설 실 370-7200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면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광남신문과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자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광남신문(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